

논설 간지

IFHE 국제병원설비학회를 다녀와서

21st Congress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spital Engineering

최광석(총무이사) Choi, Kwangseok

국제병원설비연맹의 제21회 IFHE국제병원설비학회가 2010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의 빅사이트(big sight)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프랜시스카 카스텔라 전임 회장에 이어 전 일본의료복지시설협회 회장이었던 야스시 나가사와 교수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며, 일본의료복지시설협회(HEAJ) 학회와 의료복지설비기기 박람회인 HOSPEX japan 2010도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왼쪽부터 카스텔라 전임회장, 나가사와 신임회장, 사피로 사무총장, IFHE 임원

[그림 1] IFHE학회 개최식



[그림 2] IFHE 총회 및 만찬행사

이번 학회의 주제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헬스케어 엔지니어링"으로서 앞으로 의료 및 공학기술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각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학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여 40여 편의 발표를 하였으며, 건축 계획 및 설계의 국제 비교, 병원환경과 유지관리, 감염제어 및 예방, 선진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재해경감 및 위기관리 등의 세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정만/최광석, 박원배, 한선호, 이현진/박재승 회원이 4개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의료복지 건축 연구에 대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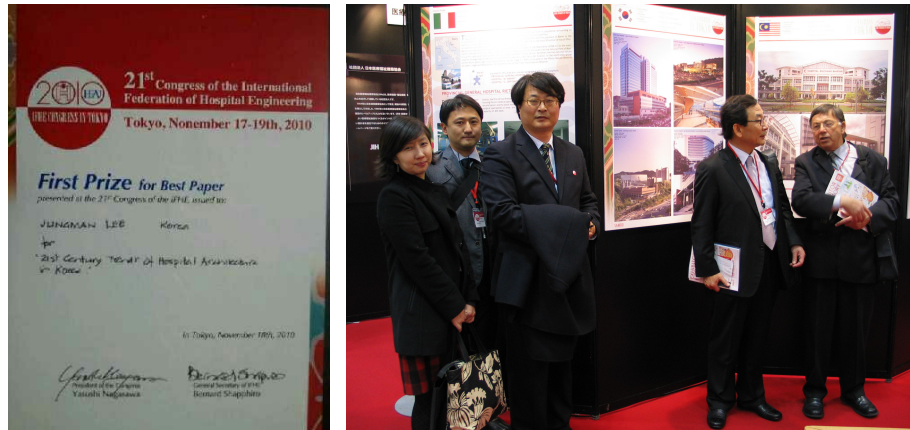
▶ 왼쪽 위부터 이정만(회장), 한선호(삼우건축소장), 박원배(정림건축이사), 이현진(한양대 박사과정)

[그림 3] 한국 참석자 발표장면

이정만/최광석 교수의 "21st Century Trends of Hospital Architecture in Korea"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의 최근 10년간의 의료환경 변화와 설계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21회 IFHE국제병원설비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원배 정림건축 이사는 서울대 분당병원 증개축 설계에서 과학

www.kci.go.kr

적 근거에 기초한 디자인(evidence based design)의 적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선호 삼우설계 소장은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생일 케이크를 먹는 장면과 영안실 풍습 등에 대한 한국적인 문화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청중의 호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양대 박사과정인 이현진 회원과 박재승 교수는 수직형 병원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건립된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수직이동시스템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삼우설계와 정림건축은 작품전시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림 4] 최우수논문상/한국참가작품 판넬앞에서

IFHE학회 참가중에는 이정만 화장과 가와구치 유타카 일본 의료복지시설협회 회장, 유동 중국 병원건축연구회 회장간의 만남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 개최 예정인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국제 심포지움을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1년 10월경에 일본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을 주제로 하기로 논의하고 환담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IFHE국제학회 기간중 통역과 길안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카지마건설주식회사의 윤세원 박사과 동경대학 박사과정인 배송이씨 그리고 니켄세계이의 이상욱씨에게 감사드리며,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 심포지움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의료복지시설학회 회장들의 만남
▶ 왼쪽부터 일본, 한국, 중국 학회 회장

2011년도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국제심포지움을 위한 한중일 관계자 회의

[그림 5] 아시아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위한 한중일 참석자 모임

